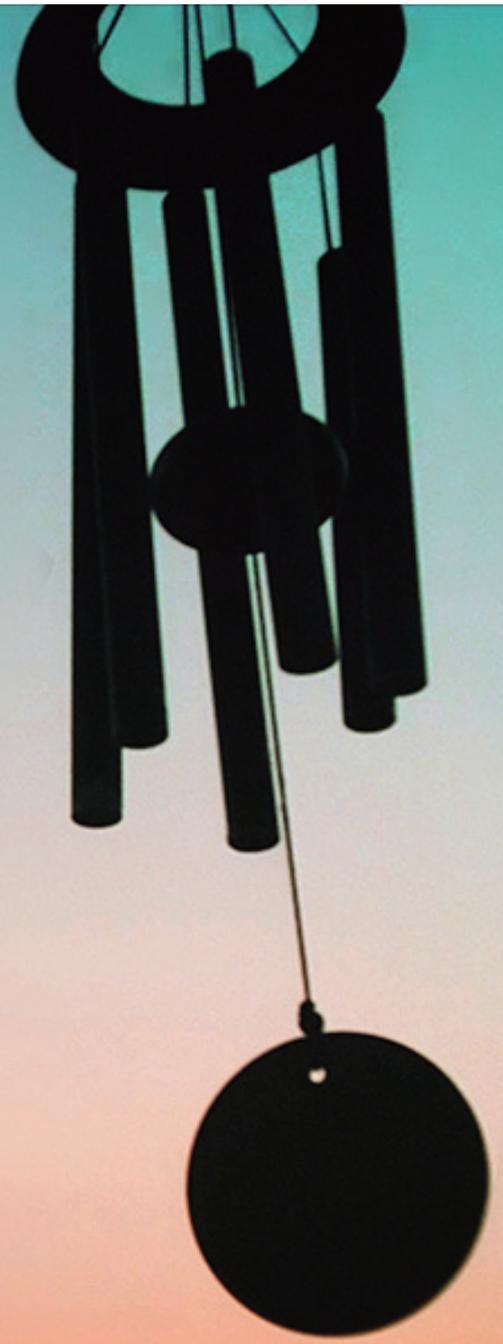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년 하반기 뉴스레터

- 학교소식**
- 1 행사/학술/연구
 - 2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3 교수동정
 - 4 석·박사과정
 - 5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 동문소식**
- 6 동창회
 - 7 석·박사 과정 동문동정
 - 8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동정

- 인터뷰** 9 정년을 맞이한 박종화 교수



학교소식	1. 행사/학술/연구	4
	2.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20
	3. 교수동정	24
	4. 석·박사 과정	27
	5.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2
동문소식	6. 동창회	34
	7. 석·박사 과정 동문동정	37
	8.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동문동정	38
인터뷰	9. 박종화 교수	41

학교 소식

1

행사/학술/연구

환경대학원 행사

동문 홈커밍 행사 및 전공별 세미나

지난 해(201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새롭게 부활한 동문 홈커밍 행사가 올해에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개최된 동문 홈커밍 행사는 졸업생들, 전·현직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 간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동창회 주최, 환경조경학과 동창회 및 환경대학원 74, 84, 94, 04학번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홈커밍 행사 시작 전에 각 전공별로 세미나 시간을 통해 학계 및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들 사이에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가졌다. 홈커밍 행사의 세부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시간	행사명	내용
14:00-17:30	전공별 행사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융·복합 세미나
		교통관리전공 박사논문 공개발표회
		환경관리전공 학술포럼
		조경 및 도시설계전공 융·복합 세미나
17:40-18:40	만찬	저녁식사 및 명예교수님 3분 스피치
18:40-19:30	공식행사	개회사, 축사, 전공별 대표 환영사 및 유병림 명예교수 특강
19:30-20:30	친교의 시간	재학생 공연, 선후배 친교의 시간(행운권 추첨)

① 동문 홈커밍 공식행사 및 친교의 시간

이번 동문 홈커밍 공식 행사와 친교 시간은 동문 홈커밍 행사의 준비위원장인 안승홍(조경 94, 환경대학교 교수)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안제, 양병이, 임강원 명예교수의 3분 스피치가 이어지면서 분위기 좋은 만찬 시간을 보냈다.

공식 행사는 이완영 동창회장의 개회사,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축사, 그리고 작년도 홈커밍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교통관리전공 배성일(계획 81, 前 교통관리전공 동창회장) 백승걸(계획 93,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 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전공별 활동상황을 발표하면서 동문 홈커밍 행사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주관기수 대표 등을 소개했다. 전공별 활동소개 발표는 조경(안계동 조경전공 동창회장), 교통(임영태 교통전공 동창회 부회장), 환경(장영기 환경전공 동창회장), SGS(최송휴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창회 사무총장), 도시(민봉기 도시전공 동창회장)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민봉기 도시전공 동창회장은 도시전공 동창회가 각 전공 75, 85, 95,

05학번과 공동으로 2015년 9월 마지막 주 토요일(9월 26일)에 환경대학원 동문 홈커밍 행사를 주관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하였다. 공식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유병림 명예교수의 '소통, 힐링, 행복'의 키워드를 통해 삶의 진정성을 생각해보는 매우 유익한 특강이 있었다.

이어진 친교 시간은 조경진 환경대학원 부원장의 건배 제의로 시작되었으며, 재학생들의 재기발랄한 환영 공연이 있었다. 환경대학원 신입생들이 주축이 된 이 공연에서는 'Let it be' 노래를 부르며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고됨을 표현한 콩트, '우리들은 미남이다', '정주나요' 두 곡을 합쳐 신나는 율동과 합창으로 흥러운 재치를 보여주었다. 선후배 친교 시간에는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안승홍 동문의 재치 넘치는 사회 속에 진행된 경품 추첨은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냈다. 경품을 받은 재학생들 및 환경조경학과장 이유미 교수, 동문들의 춤, 노래, 퀴즈와 함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대학원 동문들의 발전과 지속적인 참여를 기원하면서 기념 사진을 끝으로 홈커밍 행사의 막을 내렸다.



서울대 총동창회보 기사보기

<http://snu.or.kr/~program/newsletter/list/list.php?data=dGFibGU9YWx1bW5pLk5FV1MmaWR4PTQ3MTkmYz0xMizbj00NDA=||>



② 전공별 세미나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융·복합 세미나>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동창회에서는 “도시계획·개발의 새로운 트렌드: 이론과 실제적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융·복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민봉기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동창회장을 비롯해 최막중 교수, 이희연 교수, 김광중 교수, 김경민 교수와 본교 재학생, 동문 등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메가수도권의 형성과 발전전략’, 김대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논문이 발표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홍원표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북한 인접 중국성들의 쇠퇴산업 식별과 북한에 대한 함의’,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도시 부동산개발의 융·복합적 활용방안’, 김종일 우방건설산업 부사장의 ‘개발사업의 의사결정 리스크 실무사례’의 순서로 발표되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동문들의 열정적인 모습들과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의 최신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교통관리 전공 박사논문 공개발표회>



교통관리 전공에서는 동문 홈커밍 행사의 일환으로 박사학위논문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임강원 명예교수를 포함한 교통전공 동문과 재학생 등 총 38명이 참석한 공개 발표회에서 김주환 박사의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을 통한 CPTED 장비 위치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과 윤태관 박사의 ‘Migrating towards Using Electric Vehicles in Fleets-Proposed Methods for Demand Estimation and Fleet Design’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공개발표가 진행되었다. 공개 발표 후에 김주환 박사와 윤태관 박사에게 교통전공 동문회에서 제작한 기념패를 수여하였다.

<환경관리 전공 학술포럼>

서울환경포럼(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은 환경관리전공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환경 분야의 통합적 학술모임으로, 학술교류 증진,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두 차례 개최되고 있다. “환경농업과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추계 학술세미나는 환경대학원 홈커밍 행사 일정에 맞추어 기획되었다. 학술 세미나에는 이도원 교수, 장영기 회장을 포함한 총 30여명의 환경관리전공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학술 세미나는 이도원 교수의 기조연설과 3개 주제발표,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임경수 동문(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은 ‘농업과 환경, 지역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전북 완주군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어 구자인 동문(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은 ‘농촌 마을만들기의 실천 경험과 과제: 지역의 자치와 자립,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양주 동문(경기개발연구원)은 ‘도시농업의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도시농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제시하고, 경기도의 도시농업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시간에는 장원 동문(다별자연학교)이 좌장을 맡고, 지명 토론자인 박은진(국립생태원), 김경아(쥬터알), 최용재(환경농업단체연합회 부설 유기농업연구소)동문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조경 및 도시설계 전공 융·복합 세미나>



환경조경학과 동창회는 “창조적 도시재생, 조경과 도시설계의 몇 가지 경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74, 84, 94, 04학번이 주관했으며,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사)한국 도시설계학회가 함께 후원했다. 이 세미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조경·도시설계 전공 분야의 동문들이 함께 모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통의 자리였다. 김이식 동문(조경설계 이화원 대표)의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계획, 오형은 동문(지역활성화센터 대표)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경험, 박상섭 동문(DA건축사사무소)의 도심산업 활력거점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안계동 회장(주)동심원기술사사무소 대표)의 경의선 폐선부지 공원화계획에 대한 논문 발표를 통해 창조적 도시재생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조경신문 기사보기](#)

<http://m.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9397>

The World Bank Korea Green Growth Partnership Program “Green Growth in Action Knowledge Exchange Workshop Week”

세계은행(World Bank)이 운영하는 ‘코리아 녹색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Korea Gree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식교류 워크샵(The Knowledge Exchange Workshop Week) 참석자들이 2014년 11월 13일 환경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세계은행의 지식교류워크샵은 세계은행 팀과 개발도상국의 정부관계자, 한국의 전문가들이 녹색성장 실현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지식과 의견을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환경대학원을 방문하게 된 것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워크샵은 환경대학원의 도시·환경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소개받는 한편,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이었다.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세계은행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 12명과 터키(Turkey) 정부관계자 5명, 우간다(Uganda) 정부관계자 1명, 베냉(Benin) 정부관계자 4명이 참석하였고, 환경대학원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는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 최막중 원장이 환경대학원의 교수 및 학생 현황, 비전, 커리큘럼,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은행의 Stephen Hammer 박사(Lead Urban Development Specialist, WBG/GSURR)가 세계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녹색성장 프로젝트들을 소개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Hammer 박사는 세계은행의 프로젝트에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므로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다.



중국 URBANUS 해외 도시재생 세미나 “도시 안의 도시 만들기, 중국 심천이야기”

2014년 10월 29일 환경대학원 103호에서는 “도시 안의 도시 만들기중국 심천이야기”를 주제로 중국 URBANUS의 Tat Lam Director 초청 도시재생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강연은 김광중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심천은 홍콩의 북쪽에 위치하며, 중국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다음의 4번째 일선급 도시이다. 심천은 홍콩의 배후도시로서 35년간 급격히 성장이 진행되었는데, 바로 이런 성장을 배경으로 다양한 도시설계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심천의 도시설계프로젝트 중 URBANUS에서 진행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는데, 저소득층 주거구역의 도시재생부터 호텔단지의 재개발, 그리고 예술인 클러스트지구 육성까지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 URBANUS는 도시 안에 창의적인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하나의 목표 하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도시에 관한 주제들의 분석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프로젝트들은 중국에서의 심천의 위치, 도시 생활에 대한 기억, 도시산업의 진화 그리고 사회적 혁신까지 이 4가지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엄청난 데이터 수집과 맵핑이 진행되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Tat Lam Director는 URBANUS와 같은 다양한 맵핑과 분석이 한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에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및 과제

2014년 10월 29일 서울시청의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을 초대하여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 특별강연이 열렸다. 본 강연은 최명철 단우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진 주택실장은 해방 이후 서울시 주택정책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양적 성장에 집중하였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다양한 주거형태유지와 서민주거의 안정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진 실장은 서울과 유사한 역사와 문화권을 가진 동아시아 의 싱가포르, 홍콩, 타이페이와 서울의 주택환경을 비교하면서 서울시의 주택정책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즉, 서울시 주택정책의 3가지 방향으로 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상생의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제시하였다. 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로는 임대주택공급관리, 주거약자지원, 세입자 주거권보호를 강조하고, 상생의 도시재생으로는 뉴타운 수습방안, 도시재생선도산업, 문화 역사자산 보전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로는 친환경 녹색건축과 전통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속가능한 건축물관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강이 끝난 후 진희선 주택정책실장과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며 서울시 주택정책을 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Folk Crop Genetic Diversity To Countermeasure Climate Change

2014년 10월 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Plus 사업팀은 인도의 과학자 Debal Deb 박사(CIS Chair,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를 초청하여 "Folk crop genetic diversity to countermeasure climate change" 라는 주제로 제7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Deb 박사는 농장에서 1,300여종의 재래 벼를 경작하고 보존 중인 과학자이다. 그는 거대 농업기업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종자의 품종을 일원화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품종의 씨앗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itizenship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Plus 사업팀은 2014년 10월 17일, Patrick Devine-Wright 교수(영국 University of Exeter 지리학과)를 초청하여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itizenship"라는 주제로 제8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Wright 교수는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연구하는 환경사회과학자이다. 그는 이 강연에서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절약과 생산, 협동조합,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인 '에너지 시민'의 개념과 유럽의 에너지 협동조합을 소개하였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와 에너지 복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Plus 사업팀은 2014년 11월 13일 John Byrne 교수(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에너지기후변화정책)를 초대하여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와 에너지 복지"라는 주제로 제9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Byrne 교수는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비교하고,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Byrne 교수는 원자력이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점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보스턴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과정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BK21Plus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은 2014년 10월 17일 미국 보스턴 재개발청(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의 도시계획가 주정준 국장을 모셔 전문가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주정준 국장은 MIT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BRA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정준 국장은 "보스턴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과정"이라는 주제로 보스턴 도시 역사에서 시작하여 도시구조와 교통인프라 등을 소개하고 보스턴 수변 공간 개발과 Emerald Necklace 같은 공원체계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발과 보존, 공익과 사익의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보스턴 재개발청의 역할과 소위 Article 80 이라고 불리는 개발 가이드라인, 최근에 진행된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주 국장은 "Harrison Albany Corridor Strategic Plan" 과 이 계획 하에서 수행된 "Ink Block South End" 는 고속도로 주변의 건축물 개발 용적과 조닝을 하되, 민간 개발이익과 도시 경관 및 가로 연결성 측면에서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다. 강연에 이은 질의 응답시간에 보스턴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건축 전공 학생들의 질의들과 응답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교통관리 전공의 학술활동

제 21회 교통연구세미나

2014년 9월 27일에 제 21회 교통연구세미나가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세미나는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2004년 시작되어 지난 11년간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202편에 달한다.

이 세미나는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의 개회사와 국토연구원 임영태 박사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부에서 '경계상태속도 기반 연속류 교통혼잡지표 연구(윤희성 석사과정)와 3편의 논문이, 2부에는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경제활동인구의 계층별 교통배제에 관한 연구(남궁옥 박사과정)와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부와 2부 논문 발표 후에는 3분의 심사위원(국토연구원의 임영태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문병섭 박사, 도로교통연구원의 한동희 박사)이 발표 논문에 대한 토론과 우수논문 심사를 하였다.

최우수논문상은 'Thomson의 교통수단 간 균형조건의 일반화와 검증(박경욱 박사과정,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우수논문상은 '도시부도로 혼잡기준속도 추정에 관한 연구(우상미 석사과정)'이 선정되었으며 소정의 교통 동문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장수는 교수의 폐회사로 마무리된 이 세미나는 한 학기동안 연구에 몰두한 재학생들에게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 34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2014년 9월 15일에 'New Site: 교통체계 변화와 이전에 따른 조경계획'이라는 주제로 "제34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 콜로키움에는 환경대학원 재학생 및 외부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장수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유미 교수는 교통체계의 변화와 이전에 따른 조경계획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성공적인 조경계획의 사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embarcadero promenade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989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대지진 시 붕괴직전에 있던 고속도로에 대해 과감히 철거하여 open view를 확보하고, 수변공원을 설계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번째로 소개된 미국 휴스턴의 Discovery Green Park 프로젝트는 컨벤션센터 앞 주차장을 개조하여 녹지공원으로 조성한 결과 컨벤션 센터의 활용도를 크게 증가시킨 사례로, 공원이 조성된 이후 주변의 지가도 크게 상승되었으며, 그 가치는 공원 조성 시 발생한 비용의 수 배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소개된 미국 디트로이트의 Motor City to Garden City 프로젝트는 자동차산업의 쇠퇴로 인해 디트로이트의 인구가 200만에서 70만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크게 늘어난 유휴지에 주목하여, 해당 유휴지를 개인 텃밭으로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증진시킨 사례이다.

이유미 교수는 3개 사례 이외에도 구 도로를 선형 광장으로 조성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Avenida de Portugal, 활주로를 생태공원으로 변화시킨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Crissy Field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였으며, 성공적인 조경계획의 전제 조건으로 '접근성, 연결성, 경제성, 정체성'이라는 4가지 조건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보다 성공적인 조경계획이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연 후 2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환경조경학과의 손용훈 교수와 김세훈 교수는 각각 일본 도쿄, 미국 보스턴의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통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조경계획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연구원의 고준호 박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천 제물포길과 서울역 고가차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외에도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교통과 연계된 조경계획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관리 전공의 학술활동

환경관리 전공 융·복합 집담회

환경관리 전공에서는 환경관리 전공 융·복합 집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이 집담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탐구”라는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이슈들에 대해 연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참석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있다.

1) 적정기술 활동과 지속가능한 국제원조

2014년 8월 6일에는 윤제용 교수(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가 “적정기술 활동과 지속가능한 국제원조”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윤 교수는 동남아 지역과 같이 자본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정기술의 개발과 그를 위한 국제적 도움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의 노력과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자동차업계의 노력

2014년 9월 12일에는 박재항 이사(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미래연구실)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자동차업계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박 박사는 자동차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기술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3) 녹색성장 전략의 윤리적 문제

2014년 10월 31일에는 한삼희 논설위원(조선일보)이 “녹색성장 전략의 윤리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한 논설위원은 기후변화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 윤리적 논거들을 제시하며, 기후변화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4) 우리나라의 아고산 지역 노령림 패치의 특성과 기후변화 영향 추정

2014년 12월 19일에는 박필선 교수(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가 “우리나라의 아고산 지역 노령림 패치의 특성과 기후변화 영향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산림이 훼손당하고 복원된 역사와 각 수목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해빙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물이 부족하게 되어 일부 수목이 고사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표풍경 원형과 변형” 융·복합연구 공개 집담회

서울대 연구처 지원 융·복합연구 공개 집담회

한국의 대표 풍경 원형과 변형

오늘날 한국의 국가대표 풍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제도화되고 물질화되는가?
또한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장소: 서울대 종합교육연구동(220동) 333호

2014. 10. 15(수) 16:00-17:30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2014. 11. 19(수) 16:00-17:30

배병우 사진작가/서울예대 사진과 교수

2014. 11. 04(화) 11:30-13:30

강영조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2014. 12. 02(화) 11:30-13:30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의: sangin@snu.ac.kr / mipre81@snu.ac.kr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와 조경진 교수(환경대학원 부원장)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지원을 받아 2014년 10월 15일에서 12월 2일까지 “한국의 대표 풍경, 원형과 변형”이라는 주제로 관련분야의 권위자인 네 분의 강연자를 모시고 융·복합연구 공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담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풍경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해가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늘날 한국의 국가대표 풍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제도화되고 물질화되는가? 또한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등 아직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집담회에는 전상인 교수, 조경진 교수 외에도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배정환 교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김홍중교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백진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집담회에 많은 학생들의 참석하여 한국의 대표 풍경에 대한 높은 관심사를 보여주었다.

<김형국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첫 번째 집담회는 김형국 명예교수의 강연 주제는 “한국의 대표풍경 원형과 변형: 단상(斷短相)”으로 풍경에 관한 다양한 세부 주제들을 설명하였다. 김 명예교수는 ‘풍경: 개념시론(時論)’, ‘풍경 사랑론’, ‘풍경의 미학 재조명’, ‘풍경觀의 변화’, ‘풍경한국현대사: 체형론’, ‘풍경 실천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관의 분류에 참고가 되는 ‘현대 지구풍경론’, ‘한국인이 평생에 가봐야 할 남한 땅’ 등을 추천하였다.

김형국 명예교수는 풍경의 개념이 장소(place)보다 동적인 자유가 있는 공간(space)에 가까우며, 경계(boundary)보다 경계없는 장(field)에 가깝고, 사적(private)보다 공공(public)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 명예교수는 풍경의 미학으로 정관의 미학(aesthetics of detachment), 유관의 미학(aesthetics of engagement)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미학이 통합된 것이 동양의 산수화이며 이러한 개념이 와유강산(臥遊江山 : 누워서 강산을 유람한다)에 담겨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풍경 사랑론 측면에서 “한 사람 천재의 눈은 만인의 눈을 대신한다.”라는 김 명예교수의 말은 참석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많은 토론을 이끌어 냈다. 김형국 교수는 대표적인 인물로 故 한창기 선생(잡지 ‘뿌리깊은 나무’ 발행인)을 언급하며 소나무에 대한 그의 높은 안목과 관련된 일화를 덧붙이면서 강연을 끝맺음하였다.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제학술 활동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정란(박사과정),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11월 6~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ty Planning"에서 'Segmentation of Retail Markets in Seoul: Distribution of Specialized and Brand Shops, and Market Volatility and Growth'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244개 주요 상권의 점포 데이터를 기초로 동종업종 점유율은 상권의 안정성과, 브랜드 점포 점유율은 상권의 변동성 및 성장률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상권 입지유형별 비교분석을 통해 접근성이 낮은 상권은 동종업종 점유율이 높고 안정적인 반면, 접근성이 높은 상권은 브랜드 점유율이 높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을 실증분석 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파리아(박사과정),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11월 6~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ty Planning"에서 'Land Use Change and Flood Damage: Case Study of 2011 Thailand Flood'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방콕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변화에 관련된 홍수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피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층 높이와 같은 건물구조형태와 주택 자체가 제어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류종필(석사과정),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6월 25~28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ERES(European Real Estate Society) Annual Conference"에서 'Comparison of Natural Vacancy and Rent Adjustment Rate in Major Asian Citie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아시아 주요도시들 간에 오피스 임대료 조정률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홍보영(석사과정),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7월 9일~12일에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열린 "AESOP 2014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of European Schools of Planning)"에서 'Spatial Pattern Analysis of Music Industry: A Focus on Music Industry Value chain in Seoul,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시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가치 사슬을 분류하고 단계별 공간적 집중 패턴을 분석한 논문이다.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정해영(석사과정),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 김영규 교수(고려대 경영학과)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54th Annual Conference"에서 'Who gets hit hardest by the Financial Crisis? Dependence, Locality, and Robustness of City Economy'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시점에 전 세계 오피스 시장의 변동요인이 어떠한 것인지 분석하고, 변동성에 대한 도시 특성을 제시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석준(박사과정),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54th Annual Conference"에서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Enclave Formation in Seoul and Their Potential of Urban Revitalizat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의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정을 지역간 비교를 통해 이를 통해 조선족 밀집지가 지니고 있는 지역 활성화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김경민 교수 연구팀은 지난 11월 12~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1st Annual North American Meet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에 참가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홍보영(석사과정)과 김경민 교수는 'Study on Spatial pattern of Music Industry Value Chain in Seoul,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음악 산업의 가치 사슬이 집중 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과거와 최근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 이상욱(박사과정)과 김경민 교수는 'The Distinction between Two Value chains of an Apparel industry in Seoul'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패션산업의 가치사슬을 통제하고 있는 주체에 따라 가치사슬의 구조와 부가가치형성이 달라짐을 서울 구로·가산동과 동대문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 이상욱(박사과정), 홍보영(석사과정), 이석준(박사과정), 임홍민(석사과정), 김경민 교수는 "The Dasyetric Mapping for representation of population in building scale: An estimation by using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데시메트릭 매핑 기법을 통하여 서울시 인구를 주거 용도와 연면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작은 공간 단위인 건축물 스케일로 재현하고 추정하였다.
- 한구영(박사과정)과 김경민 교수는 'Shopping Centre Classific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focus on ownership structure'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서울 수도권 내 대형 쇼핑몰 개발의 추이와 유형을 분류하고, 개발업체와 유통업체 별 쇼핑몰 입지 전략이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였다.

환경조경학과 이희원(석사과정), 이유미교수(환경조경학과)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14년 6월 5일~7일에 열린 제 51회 World Congres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에서 'The Recovery of Spaces for Emergencies: Designing Waterfronts with Expanding Boundaries'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이규철(박사과정)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제16회 International Planning History Society Conference에 참가하여 'Modernization and Extinction of Urban Streams: Urban Structure Changes and The Introduction of Urban Water and Drainage System After The 20th Century'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이제이(박사과정)는 2014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에 참가하여 'The Micro-discourse about Urban Parks in Personal Media: Focused on Seoul Forest'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원자연(박사과정)은 2014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14 SOCIO-INT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에 참여하여 'Comparative Study of Bamboo Culture and its Applications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김정화(박사과정)는 2014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개최된 ECLAS(European Council of Landscape Architecture Schools) Conference Porto 2014, Landscape: A Place of Cultivation에 참가하여 'Transformations of Nature as Represented in Botanical Gardens in Seoul'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협동과정조경학 김준현(박사과정)은 2014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개최된 2014 ECLAS international conference, Landscape: A Place Of Cultivation에 참가하여 'Ui-Won, A Literary Form of Garden Making in the Later Joseon Dynasty'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

1) 국내 학술대회 수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안은경(석사과정),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10월 25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14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 및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창출된 일자리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정현(석사과정),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10월 25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14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의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광역경제권별로 다른 일자리 유형에서 나타나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업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정란(박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10월 25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14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서울 상권 세분화: 특화 및 브랜드 점포 분포와 상권 변동성 및 성장률'이라는 제목으로 분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260개 주요 상권의 점포 데이터를 기초로 특화도 및 브랜드 점유율이 상권의 변동성 및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권의 진화단계별로 특화도 및 브랜드 점유율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게 됨을 실증분석하였다.

대한교통학회 제7회 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교통관리전공 남궁옥(박사과정)과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9월 18~19일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열린 대한교통학회 제7회 학술발표회에서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빈곤층의 교통배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주요활동 목적에 대한 이동시간과 참여율을 확인하고 빈곤층의 통행배제 여부를 검토하였다.

2) 공모전 수상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한수경(박사과정)은 2014년 서울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서울대도시권 고령자의 시간대별 통행 흐름 패턴과 고령자 통행 목적지의 유인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대도시권 고령자의 시간대별 통행 흐름과 그 특성을 밝히고 고령자들을 유인하는 목적지의 도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통행이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고령자들의 활동 패턴과 필요를 공간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상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 이다예(석사과정), 유재성(석사과정)은 2014년 서울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패턴과 근린환경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시 저소득층 노인들의 밀집 지구를 추출하여 변화 패턴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울메트로 개통 40주년 기념 우수논문 현상공모 최우수상

교통관리 전공 정동재(박사과정)과 장수은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철도학회의 서울메트로 개통 40주년 기념 우수논문 현상공모에서 '도시철도 교통량 배정 알고리즘의 적합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교통량 배정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이론적 가정의 합리성과 계산적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환경정보공개제도 아이디어 기획 공모전 우수상

환경관리 전공 김대수(석사과정)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아이디어 기획 공모전에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파급효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우수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주요 환경오염부하물질을 업종별로 선정하여 기업 간 상대적 비교가 용이한 환경지수 개발을 시도하였고, 이를 기초로 기업의 환경성과를 등급화하여 일반인이 보다 환경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회 도시설계 공모전 장려상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주최하는 제 5회 도시설계 공모전은 '도시맥락을 고려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쇠퇴한 도시, 지역 내 장소적 특성을 도시설계에 반영한 도시재생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모 하였다. 환경조경학과 김영은, 허윤상(석사과정)의 '4.45 길이 열리다 마음이 열리다'는 현재 수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도시개발 중, 서수원이 동수원의 도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발 저해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수인선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수원시에서 계획된 수인선 지하화 구간은 2.79km이다. 하지만 수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류공원까지 1.66km를 새롭게 제안하여 총 4.45km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수인선 폐선 이후, 대상지가 도시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경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도시의 활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를 연결시키고 더욱 뻗어나가 커넥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수인선 부지 내 새로 계획하는 공원은 사람들의 삶과 공간 그리고 시간을 연결해 주고자 한다. 본 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슈와 잠재성을 고려하여 마을 커뮤니티를 통해 도시재생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조경문화박람회 은상

서울특별시와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의 일환으로 시민이 꾸미는 불후의 정원 경연대회가 열렸다. 정원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와 정원 그리고 스토리를 접목한 업그레이드 된 정원문화를 소개하며 도시 자투리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불후의 정원(Temporary Garden)” 을 만들고자 하였다. **환경조경학과 정은하, 김하련, 제지현, 정화영, 조소현(석사과정)**의 ‘언어의 정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자 불변하는 것, 동시에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인 “언어”를 주제로 하였다. 현대에는 TV, 컴퓨터 등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한 매체들이 발전하면서, 언어에서도 단시간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말들을 꽃과 정원으로 정화하고자 하였다. 매체의 발달로 생겨난 많은 신조어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순수하고 정화를 상징하는 꽃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갈 말들이 점차 정화되길 바라는 우리의 염원이다. 꽃들의 순수한 모습을 바라보며, 언어에 담긴 순수함을 잊지 말자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다짐으로 정원을 만들었다.



제12회 농촌어메니티 마을설계공모전 우수상

(사)한국농촌계획학회가 주최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어촌공사가 후원한 2014년 제12회 농촌어메니티 마을설계공모전에서 **환경조경학과 강지아, 김지현, 민경훈(석사과정)**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사)한국농촌계획학회는 농업·농촌 유산의 발굴과 보전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농촌 유산을 활용한 창조적 마을만들기’라는 주제 하에 공모전을 진행 하였다. 이들은 ‘지족, 잇다’라는 제목으로 남해군 지족리의 자연친화 어업방식인 ‘죽방렴(명승 제기호)’이 가진 유일성과 역사성의 가치를 주목하였다. 이들은 빠른 것,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유산 ‘죽방렴’을 알리고 천혜의 자원을 가진 ‘지족마을’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남해군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서의 지족마을을 만들고자 하였다.

IFEZ 도시디자인 학생공모전 장려상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주최한 IFEZ 도시디자인 학생공모전에서 **환경조경학과 최대웅, 김민경, 지혜연(석사과정)** 학생이 참여한 ‘Floating Hexagon’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천대교가 지어질 당시 필요한 자재들을 하역하고 모아 두는 장소인 케이슨 제작장이 인천대교가 완공된 후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그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개방하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이다. 신도시 건설, 간척지 개발 등으로 얼룩진 송도에 또 다른 개발의 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자연에게 또 다른 자연을 제안할 수 있는, 예전의 환경을 되살려 보자는 태도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방향성이 된다.



육각형 모양의 해초굴락 형성을 통해 바다생물의 은신처를 조성하고, 자연정화기능을 이용하여 송도 앞바다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하여 바다 흐름에 따른 해초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각적 재미를 선사한다. 기존 케이슨 제작장 구조물의 재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대상지의 장소성을 새롭게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주최한 IFEZ 도시디자인 학생공모전에서 환경조경학과 이지훈, 이상민, 신수경(석사과정) 학생이 참여한 '6ix Hours'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과거 인천 신항의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던 장소가 산업 유휴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장소에 대한 용도와 기능을 재해석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시 화귀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송도는 도시적, 이용자적 범주에서 바다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친수적 도시로서 그 역할이 부족하다. 따라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선착장이 가진 모듈화된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구조를 누르고 올려주는 단순한 조작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조작된 장소를 통해 서해가 가지고 있는 조수간만

차이라는 자연적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조수간만의 차이와 조작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친수공간은 장소를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이용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셜벤처 경연대회 장려상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영준, 신예나, 제지현, 허지원), 한국 IT전문학교 (김민형)으로 구성된 '사운드스케이퍼'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운드스케이퍼는 줄어드는 녹지와 증가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손쉽게 정원을 감상하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정원문화를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소리정원',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정원', 조성과 향유를 위한 '현실정원'으로 구성됐다. '소리정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정원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활용하여 정원을 이해할 수 있고, '가상정원'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정원을 가꿔보며 주된 요소들을 체험, 교육 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유저는 가상정원, 소리정원을 기반으로 현실에서 공공정원을 조성,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게임뿐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정원 매칭, 사회적 기업들과의 이벤트 등을 표시해주며, 다녀갔던 친구의 흔적, 이용후기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2014년 하반기 국내 학술대회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도시



2014년 11월 28일에는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SBS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세미나에서는 물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제도 및 정책적, 기능적, 도시 설계적인 접근을 소개하여 물의 가치와 이용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의 축사에 이어 양병이 교수(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21세기를 위한 물의 환경계획학’, ‘좋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도랑 살리기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 ‘좋은 도시를 위한 하천의 위상과 기능’, ‘도시설계, 물을 만나다’의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 발표 후에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 김창수 교수(부경대 행정학과),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유다혜(삼성전자 무선사업부 UX디자이너)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 세미나의 의미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1세기를 위한 물의 환경계획학’이란 제목으로 신앙과 도덕, 속담에서 물이 가지는 인문사회학적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전 교수는 근대에 들어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물이 지리적으로 광역화되고 원격화되는 ‘거리화’, 물이 과학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전문화’, 물의 생산과 공급을 국가적 차원의 전문가들이 독점하게 되는 ‘독점화’를 특징으로 한 근대화가 물 사용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음을 부각하면서 대표적인 수자원으로 강을 손꼽았다. 전 교수는 강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공계획학적 전략의 첫 번째로 분권화를 제안하였다. 지구는 작은 생태계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물 정책의 분권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방과 정부간 과도기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전략으로 인간중심적이고 자립적이며 민주적이고 지역중심의 개발에 걸 맞는 적정기술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은 오랜 세월을 걸쳐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 작품을 강조하면서, 환경문제, 물문제, 도시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면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문태훈 교수(중양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좋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문 교수는 '한국은 경제발전을 하면서 물관리를 잘 한 국가로 인정받지만 물낭비가 심하고 통합적인 물관리가 되지 않으며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개선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좋은 물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물환경 비전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초기에는 안정적인 물자원을 개발하는 정책에서 종합적인 물관리시대를 지나 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흐름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선진국 물관리 흐름과 비슷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문 교수는 물의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추세로 보았을 때 미래의 용수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용 규제와 행위규제가 복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배출지점이 불특정한 비점오염원과 지하수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비롯해 부처간 중복사업 문제를 거론하였다. 특히 물의 소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수도물 불신으로 인해 수도물 음용률이 낮으며 정부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률이 감소하여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정책은 기초단계이며,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5개 부처에서 18개의 법령으로 관리되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환경을 위해서는 정책의 시행과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오기현(SBS PD) 프로듀서는 '도랑 살리기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발표하였다. SBS에서 방송되는 교양프로그램 <물은 생명이다>의 프로듀서인 그는 도랑 살리기를 통해 자연 환경과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어 물의 가치를 제고시킨 여러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도랑 살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효과를 본 독일 튀빙겐의 노이에 아머바흐의 경우 도랑을 살리고 가꿈으로써 지역의 상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렸다. 또한 일본 미시바시의 겐베에가와와 같은 경우 도랑의 오염문제로 인해 매립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도랑의 가치를 알고 도랑을 살린 결과 현재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주민들의 애착심이 커지고 도시 역사에 큰 관심을 갖는 효과도 나타났다. 국내 사례로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지리산 둘레길(수철마을), 충북 보은의 하안민들레 마을의 생태자연습지, 칠갑산 산꽃마을의 통나무보를 소개하였다. 오기현 프로듀서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공동체의식이 회복되었으며 부수적으로는 특산물 판매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물대기가 쉽고 땅값이 상승하면서 손자 손녀들도 다시 찾아오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도랑살리기가 결국 마을을 살리는 운동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인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좋은 도시를 위한 하천의 위상과 기능'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손 교수는 좋은 도시란 자연과 인간의 순리를 따르는 도시인데 순리를 거역하면 힘도 많이 들뿐더러 부작용도 생긴다는 설명과 함께 청계천을 사례로 역사적 위상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언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청계천 관리가 도시계획 그 자체로 볼 만큼 중요한 과제였으며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대대적으로 하천 정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1903년 도성 내 일본인 거류지에서 근대 상수도 체계가 마련되면서 수질 관리가 소홀해졌고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여 청계천의 도시적 위상이 바뀌게 되었다. 오염이 심해져 청계천을 암거화하는 계획이 세워져 실현되었고 서울에서는 하천경관을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2005년 청계천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녹지자원으로 그 위상을 회복하였고 시민들에게 다시 친숙한 대상이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손 교수는 일본 동경에 위치한 3개의 도시하천 재생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참여하며 하천을 함께 관리해나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역성,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배려가 균형 있게 논의되고, 지역에 맞는 형태로 도시하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지역의 여건, 역사성, 하천의 기능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손 교수는 서울을 흐르는 많은 감춰진 지천들도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환경여건과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된 도시녹지로서 잘 보전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도시설계, 물을 만나다'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1950-60년대 전 세계 도시들은 복합적인 도시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물 환경과 그 주변, 특히 도심부에서 가까운 워터프런트 지역을 경제성장의 엔진을 전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국내 도시에서도 도시개발을 통해 물 환경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도시적 스펙터클을 창출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물 환경이 새로운 부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적 대상이라는 믿음과 함께 물 환경 변화와 접근성 개선에 대한 실질적 수요와 대중적 기대감이 뒤섞여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에는 블록 버스터형 워터프런트 개발이 감행되고 있으며 이 개발은 도박성과 신중함이라는 이중성 아래에 이미 다른 장소에서 검증이 완료된 개발

템플릿에 의존하여 가짜 장소성이 반복적으로 구현되고 지역성이 사라지는 단점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물 환경과 그 주변 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개인적 기호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정형화된 테마를 바탕으로 한 지역 명소화와 물 환경 상품화는 매우 위험하며, 이로 인해 고착화된 지역 정체성은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회구성원과 용도 변화를 배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는 '변화의 시간상', '사회적 다양성 흡수', '정형/비정형 도시형태의 복합성'을 물 환경 주변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응성(adaptability)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환경계획연구소 수요집담회

작은 도시 큰 기업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는 "작은 도시, 큰 기업"의 저자 모종린 교수를 초청하여 수요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모종린 교수는 국제정치경제, 비교정치경제, 세계화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모종린 교수는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된 이유에 의문을 가지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도시와 기업을 추적하였고, 중심도시와 확연히 구별되는 작은 도시만의 라이프스타일에 그 답이 있음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예시를 든 기업은 스타벅스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첫 번째 점포를 연 스타벅스는 시애틀이 가지고 있는 기후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커피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고 여기에 혁신적인 문화가 더해져 스타벅스가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시작한 나이키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자유롭고 활동적인 도시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에 입지해 있는 벤처기업은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도전 정신(저항 문화)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친환경 자연식품의 대표 기업인 홀푸드마켓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역의 자유로운 문화(히피 문화)에 바탕을 두었다. 그 밖에도 유럽의 이케아(가구회사), 네슬레(식품회사), 일본 교토의 교세라(부품회사) 등이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많은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모종린 교수는 도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인 특징을 보아야 작은 도시에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으며, 성공한 작은 도시의 4가지 조건으로 지역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 개방성, 세계화, 기업가 정신을 손꼽았다. 모 교수는 우리나라도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발견하고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향후 작은 도시에서도 큰 기업이 성장하고 배출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환경계획연구소 “Field Walk” 프로그램

부암동 일대 문화 탐방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Field Walk”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답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8월 29일에는 최근 산책 코스로 유명해진 부암동 일대를 탐방하였다. 전상인 교수(환경계획연구소장)를 비롯하여 재학생 20여명이 함께 한 이번 탐방에서는 서울미술관, 환기미술관, 창의문 그리고 운동주문학관을 방문하였다.

부암동은 인왕산과 북악산 북쪽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서 다양한 문화공간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미술관 옥상정원에 위치하고 있는 흥선대원군 별장 석파정, 도시의 소음, 빛, 스토리 등의 관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던 환기미술관의 “Site Whanki Wave” 전시, 지대가 높은 부암동에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건설했던 수도 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운동주 문학관 등이 인상적이었다. Field Walk 참가자들은 탐방 후 인근 지하 소만두에서 저녁식사로 탐방을 마무리하였다.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

2014년 11월 14일에는 환경계획연구소 주최로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를 탐방하였다. 이번 탐방에서는 전상인 교수(환경계획연구소장)를 비롯하여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 김성수 교수(환경계획학과), 손용훈 교수(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재학생 20여명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현장학습은 창신동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민 교수와 창신동 주민이자 김경민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손경주(공과대학 도시설계협동과정 박사수료)의 안내로 창신동의 봉제 공장과 사회적 기업 등을 방문하였다.

창신동은 낙산 자락에 위치한 동네로서 부유층의 주거지역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석재를 공급하고자 만든 채석장이 들어서며 변화되었다. 해방 후 피난민들이 산자락과 채석장 인근에 자리를 잡았고 동대문 패션산업의 배후지로서 창신동의 봉제 산업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봉제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SPA브랜드 등장으로 창신동 봉제 산업이 점차 위축되었다. 최근 창신동은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창신동 재생을 돕고자 참여하고 있었다. 탐방은 창신동 시장에 위치한 한식당 진고개에서 식사하며 서로의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무리하였다.



교수동정

-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4 서울건축포럼 여름건축학교 <담박소쇄노들> 튜터로 참여했으며, 8월에는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의 초대로 제1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학술세미나 <그 많은 한옥은 다 어디로 갔는가?>에서 "2002-2013 서울시 한옥멸실의 거시적 원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0월에는 독일 Wuppertal Institute와 국내 녹색기술센터에서 공동 주관한 <Low Carbon and Eco-friendly Cities> 워크샵에서 "Preparing for uncertainties and hazards through urban design"이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를 했으며, BK21 플러스 해외학자 초청사업으로 보스턴재개발공사의 주정준 도시설계가를 초대해 환경대학원에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11월에는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SBS문화재단 공동기획 세미나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도시>에서 "도시설계, 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11월 22일에 인도네시아 디포네고로대학(UNDIP) 건축학과장과 공대부학장이 환경대학원을 방문했다. 김세훈 교수는 이들과 함께 향후 두 대학 간 학술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김세훈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월간 <환경과 조경> Theory & History에 현대 도시설계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ICLEI East Asia 주최로 중국 북경에서 2일동안 열린 "Energy-safe Cities"를 주제로 한 전문가회의에 참가하여 발표와 좌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Urban energy systems and current status of East Asia Cities session 에서 "Energy use and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를 발표하였고 Transforming energy demand management, and transitioning to resilient renewable energy systems - I session에서는 좌장을 맡았다.

윤순진 교수는 IUNESCAP 주최로 태국 방콕에서 3일 동안 열린 "Expert Group Meeting on Macroeconomic Prospects, Policy Challeng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여 "Moving towards integr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Turning imbalances into synergies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progress"세션의 패널로 참여하여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세션의 토론에 참여하였다.

윤순진 교수는 2014 서울 국제에너지컨퍼런스(Seoul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2014)에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복지(Energy Efficiency and Energy Welfare)"란 주제로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존 번(John Byrne) 교수님과 공동 발표하였다.

윤순진 교수는 2014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학술지 논문을 발표하였다.

- 김진아, 윤순진.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평가: 계획요소와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29-51
- 김경신, 윤순진. "재활용 행동 영향요인을 고려한 기저귀 재활용 정책 설계: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정책, 22(3): 101-130
- 정연미, 윤순진. "원자력발전에 대한 독일 시민교육-정치교육원의 웹페이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4): 107-136
- 이승한, 윤순진.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 유형: Q방법론을 중심으로," ECO 18(2), 119-167
- Yun, Sun-Jin, Dowan Ku, Nyunbae Park, and Han Joon. "Framing Climate Change as an Economic Opportunity in South Korean Newspapers, Development & Society, 43(2).

-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9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된 제7회 전통산림지식 국제학술회의에서 지난 6회 동안 있었던 총 146개의 연구내용을 분석하고 전통생태지식의 관점에서 앞으로 학술대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기초강연을 하였다. 전통산림지식에 대한 연구의 공간적 규모와 목적, 방법론적 접근 방법, 영역 등을 고찰하고 향후 아시아의 사회-생태계 개념을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응 전략에 대한 관심 등 더욱 다양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 Lee, D., G. Kim, and C.-R. Park. 2014.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research in traditional forest knowledge and culture in Asia. A paper presented at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ditional Forest Knowledge and Culture in Asia, "Resilience of Local Community and Ecosystem Services of Traditional Forest Knowledge." Korea Forestry Institute, Seoul, 23-25 September.

이도원 교수 연구팀은 독일 바바리안 국립공원 연구팀과 함께 소양호 유역 산림에 대해 산림의 영급과 종 구성에 따른 숲의 구조의 차이를 원격 영상 (LiDAR)을 통해 탐지하고, 이의 생태적 의미에 대해서 제2회 아시아 풍수 워크샵에서 발표하였다. 원격 탐사 기술로 생물 다양성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뮌헨공과대학의 주요 연구대상지인 바바리안 국립공원에서 개최한 이번 워크샵은 미국과 독일, 중국, 네덜란드, 한국 5개국에서 초청한 전문가들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 Bae, Soyeon, J. Mueller, D. Lee. 2014. Modelling forest succession types by using airborne LiDAR.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3D Vegetation Mapping using Advanced Remote Sensing - Implications for Seamless Modeling of Terrestrial Ecosystems. St. Oswald, Germany. 24-26 September.

이도원 교수 연구팀은 12월 5-7일 쿤밍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풍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양의 풍수를 현대 생태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내용과 조선시대 구황식물이며 비보풍수의 소재로 사용된 상수리나무숲의 공간분포와 마을공간의 관계와 함께 잔존하는 현황을 조사하고 생태적 의미를 논의했다.

- Lee, D. and H. Lee. 2014. Current perspectives in some pungsu practices of Hanyang, the capital of Joseon Dynasty. A paper presented at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sian Geomancy Studies Towards Harmony amongst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Culture. Kunming, China. 5-7 December.
- Park, C.-R., W. Kang, and D. Lee. 2014. Complementary Planting of Oaks at the Pungu Perspective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sian Geomancy Studies Towards Harmony amongst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Culture. Kunming, China. 5-7 December.

이도원 교수의 학부수업 <<생활 속의 생태학>>이 2014년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강의동영상강좌 사업의 지원수업으로 선정되어 한 학기 동안 촬영 강의를 진행했다. 생태학자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도시생활에서 만나는 환경과 다양한 나라의 여행길에서 만난 풍경에 대한 인간생태학적, 경관생태학적, 전통생태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내용의 수업이 되었다. 수강한 학생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시사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바탕으로 하여 틀에 얽매이지 않은 학습법이라 힘들었지만 유익한 강의였다고 평가했다. 이 온라인 강좌는 내년 3월부터 SNUON의 공개서비스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이도원 교수는 방송대학TV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공감특강: 생태적 삶을 이야기하다”에서 집과 연구실을 오가며 만나는 현상들을 생태학적 시각으로 해석한 “출근길 생태학”을 촬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한 시간 동안 방영될 예정이며, 1월 11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재방송이, 1월 13일 화요일 오후 23시에는 삼방송이 계획되어 있다.

-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강릉시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강릉 폐철도 지상부 토지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2018년까지 원주와 강릉을 잇는 철도 개설로 강릉 도심에 관통하는 철도가 지하화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폐철도부지 유휴공간을 동계 올림픽을 대비하는 도심 재생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공원·녹지공간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영역의 결과물은 10월에 주민설명회 및 시장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석정 교수는 지난 7월 김광중 교수(환경계획학과)와 공동으로 수행중인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색도시 디자인 기술 개발” 연구과제의 현지 답사 및 세미나를 위해 독일 현지의 공동 연구기관이자 우리 대학원과 MOU를 체결한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KIT)를 방문하였다. 이 방문에서 한국 도시 주거지 내 유휴공간의 활용방안 및 향후 연구 방안 조연을 위해 독일 측 전문가와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일의 도시 주거지 유휴공간 활용 방안 및 이에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 기술 모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4년 9월 1일, 국내 편의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단체인 한국편의점협회 자문위원회 위촉되었다. 10월 16일에는 서울시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민도시아카데미에서 “도시와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7일에는 한국미래학회의 덕산미래강좌에서 “한국의 공공지식인”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또한 전상인 교수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서울대학교 미래실천위원회의 교육분과 위원, 11월 10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현장의 제정위원회 위원, 11월 13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 ‘X연구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는 2014년 8월 10일~13일 아시아 도시계획대학협회(APSA, Asia Planning Schools Association) 집행위원 자격으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UTM(University Technology Malaysia)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2019년 APSA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최막중 교수는 2014년 10월 26일~30일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청 국제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은 마리나베이(Marina Bay)를 비롯하여 싱가포르의 모든 도시·지역계획과 도시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국제자문단(IPE,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은 싱가포르의 미래 도시계획·개발 전략 수립의 방향을 조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국제자문단의 임기는 2년(2014~16)이며, 전세계 미래전략, 도시전략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최막중 교수가 국제자문단에 위촉되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싱가포르의 장기전략계획으로서 2060년 Concept Plan 수립을 위한 미래 환경변화와 계획과제 도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Concept Plan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Master Plan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허가(development control) 등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다. 계획과제는 미래 경제구조 변화, 기후변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다핵 공간구조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이를 동안 오전, 오후에 걸쳐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되었고, 국제자문단 사이에 의견이 수렴된 결과는 마지막 날 국가개발부(Department of National Development)에 최종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도시국가의 미래 전략을 현지인의 시각이 아닌, 외국인을 포함한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수립하려는 태도가말로 싱가포르가 갖는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된다.

최막중 교수는 2014년 11월 6일~9일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회장 자격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VUPDA, Vietnam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Association) 창립기념식 및 국제도시계획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 ▶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지난 2014년 11월 11일에서 1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4회 BESETOHA University Presidents' Forum (북경대, 서울대, 동경대, 베트남국립대 총장 주관의 연례 학술포럼)에 참석하였다. "Green Growth"를 주제로 개최된 이 포럼에서 홍중호 교수는 "Green Growth Strategy of Korea and Green Leadership Education Program of SNU"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석·박사과정

2014학년도 1학기 졸업식



2014년도 후기 졸업식이 2014년 8월 28일 목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30명(환경계획학과 15명, 환경조경학과 15명), 박사 8명(환경계획학과 2명, 환경조경학과 6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서는 석사학위자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환경계획학과 이성재(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평가: 사회적 편익과 천연가스 가격의 불확실성), 환경계획학과 홍이슬(EU-ETS 탄소가격 결정요인: 과잉할당량을 중심으로), 환경계획학과 최현지(2세대 모형에 기초한 역모기 선택조건), 환경조경학과 김지아(서울시 도시형 장터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환경조경학과 이슬(우수유출저감기법을 활용한 상습침수유역 설계)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201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

2014년 8월28일 졸업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의 다섯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구제서 장학금이 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4년 2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정동재(박사 2학기)학생과 환경조경학과 신에나(석사 2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전현정(석사3학기), 강소연(석사2학기), 윤희성(석사1학기), 환경조경학과 최대웅(석사1학기)**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 전달하는 **최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계획학과 유재성(석사 2학기), 정현영(석사 1학기), 환경조경학과 김지훈(석사 3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교통동문회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통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통관리전공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교통전공 남궁옥(박사 4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환경관리 석박사과정생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발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환경관리전공 장리아(박사 1학기), 송지혜(박사 수료)학생**에게 수여되었다.

2014학년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계획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4년 8월 13일 GLocal 홀에서 환경계획학과 후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총 36명의 신입생(박사과정 10명, 석사과정 26명)이 참석하였다. 1부에서는 학과 조교들의 학과 및 환경대학원 시설 소개, 수료 요건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2부에서는 6개조로 나뉜 신입생들이 서로를 소개한 후, 교수님들과 동기들 앞에서 앞으로의 학업계획과 포부를 재미있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부는 낙성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교를 나누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었다.

환경조경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4년 8월 26일에 환경조경학과 후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학과소개와 수강신청 설명 이후 학과장님과 면담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저녁 친교시간에는 학과 교수 및 조교,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입생들은 "My Favorite Things"라는 주제로 자기 소개와 각자의 관심사 및 학부전공에 맞추어 제작한 동영상을 발표 하였다. 신입생들의 동영상 발표 후에는 더욱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즐거운 친교 시간이 이어졌다.

Back To School Party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2014학년도 2학기 시작을 알리고 학업 의지를 다지고자 2014년 9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에 "Back to School Party" 행사가 GLocal 홀에서 진행되었다.



환경대학원 교수, 재학생, 신입생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와 조경진 교수(환경대학원 부원장)가 축사로 시작되었다. 먼저 학생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환경대학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두 후보의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뒤를 이어 신입생과 재학생의 친목 도모를 위해 학생회에서 준비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옥상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다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으며, 한 학기의 기분 좋은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회장 선출



왼쪽 부회장 장혁권, 오른쪽 회장 이성욱

환경대학원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석사과정 이성욱입니다. 제가 2014~2015년 환경대학원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2014년도 1학기 말에 있었던 학생회장 선거에서 저와 다른 후보의 동문선 선거가 무효 처리되어 2학기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17일 3일 동안 실시한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193명중 총 134명(69.4%)가 투표했으며 70표 (52.2%)로 당선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대학원 학생회장이라는 중책을 역임하며 모든 환경대학원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환경대학원은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소통과 조화입니다. 여러 동문들 그리고 재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소통의 힘이 학생회에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학교생활을 해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저 말고 학생회의 문을 두들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도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학기 그리고 2학기를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각 전공끼리의 조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가을 작은 운동회였습니다. 학기 중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가 힘들실 거라 걱정하였지만 40명 정도 되는 각 전공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장소와 기회만 있다면 더욱 하나 되는 환경대학원을 만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대학원의 소통과 조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공약 중 이루어진 것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약들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학생회 임원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봉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학생회가 나아가는 길을 따뜻한 시선과 참여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대회

2014년 10월 22일에 2014 환경대학원 체육대회가 학생회 주관으로 버들골에서 진행되었다. 본래 환경대학원 체육대회 행사는 1학기에 전공별 팀 대항 경기로 개최되었으나,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어울림의 날 등산대회로 축소, 변경되었다.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소규모로 치러진 금번 체육대회 행사에서는 여러 전공을 섞은 두 개 팀으로 진행하여 재학생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전공별 교수,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성욱 학생회장과 장혁권 학생회 부회장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체육대회는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단체줄넘기, 짝 피구, 피구, 전략 줄다리기 그리고 이색계주 순이었다. 종목을 진행할수록 재학생 간 허물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 이후, 간식으로 피자를 같이 먹으며 체육대회 행사를 종료하였다.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SGS 31기 출범식

2014년 10월 16일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제 31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의 출범식이 있었다. 이 출범식에서 최막중 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융·복합 개념에 기초한 프로그램혁신을 통해 명품강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펠로우분들의 도움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종상 주임교수는 도시·환경 프로그램에 인문학적 사유를 융합하여 가치 '도시·환경 인문학'을 천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펠로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최고위과정은 홍종호 교수, 백운수 대표(미래 E&D), 최열 대표(환경재단)가 공동주임교수로 함께 과정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31기는 2015년 5월 22일 수료예정이며, 35명의 Fellow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신혁(주예코밸리 부사장), 권수아(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권순식(코오롱위터엔에너지 상무), 권혁설(주엠아이티존 대표이사), 김광진(국회의원), 김덕영(보미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윤식(시흥시장), 김중주(법무법인태산 변호사), 김종천(주기안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남경희(동국대학교 교수), 류은자(환경조형예술연구소 대표), 류한원(주알바트로스 대표이사), 문제열(경기도청 친환경정책팀장), 문태현(주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전무), 박우평(KT estate 전무), 송향숙(여성과공간연구소 소장), 신원남(안산시청 안전도시국장), 신천희(장수산업주 이사), 안영애(안스디자인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오세경(오림건설 상무), 오화식(조경사무소사람과나무주 대표이사), 윤홍노(주간삼건축 부사장), 이상인(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상진(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이승제(서울나무병원주 원장), 이연소(주유엘피 소장), 이용호(수원시청 도시정책실장), 이창수(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정진용(제일종합조경주 대표이사), 조상현(방배경찰서 서장), 조진형(드림시큐리티 부회장, 주우현이앤지 감사), 차승용(현대건설 상무), 최용준(아이서비스주 팀장), 허수경(주스페이스톡 대표이사), 황재식(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SGS 31기 국내 시찰

제 31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2014년 10월 18일~1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낙후된 지방 소도시 재생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의 성공적 발전전략 실천사례인 장항·서천 지역을 답사하였다. 이 답사에는 성종상 주임교수, 홍중호, 백운수 공동주임교수와 20여 명의 펠로우가 참여하였다.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환경적 영향으로 무산되면서 정부대안사업으로 추진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산업유산이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탈바꿈된 미곡창고 등을 살펴보았으며, 한산지역의 특산품인 소곡주 빚기 체험도 하였다.



SGS 31기 특별강연

제 31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2014년 12월 11일에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전반기 마지막 세션으로 김용택 시인을 초청하여 부부/가족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동문소식

6

동창회

총동창회 등반대회

환경대학원 총동창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홈커밍데이 행사와 더불어 가족 친목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10월 19일에 개최된 등반대회에는 동문들과 동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오전에 교내탐방 및 관악산 등반을 한 뒤 버들골 잔디밭에 앉아 점심을 먹었으며, 모교 재학생과 동문들의 공연과 함께 풍성한 경품 추첨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감하였다. 본교 동문들도 다채로운 행사 및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GS 동창회 임원 및 각기대표 초청 간담회

2014년 8월 20일 수요일에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 성종상 주임교수, 백운수 공동주임교수, 최열 공동주임교수는 SGS 동창회 문국현 회장과 각 기수 대표 20여 분과 함께 31기 모집 및 과정 발전방안 등을 안건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최막중 원장은 환경대학원이 '공간을 만드는 리더'역할에서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역할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며, 도시·환경 최고위 과정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융·복합 개념에 기초한 프로그램 혁신을 통해 명품강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최근 서울대학교의 공개강좌 평가에서 우리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성종상 주임교수는 30기 과정에서는 기존의 도시·환경 프로그램에 인문학적 사유를 융합하여 가치 '도시·환경 인문학'을 천착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펠로우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31기 과정에서도 좀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함께 과정을 운영할 공동주임교수로 새롭게 모신 백운수 대표(미래E&D)와 최열 대표(환경재단)를 소개하였다.

문국현 회장은 새롭게 공동주임교수로 모시는 백운수 대표와 최열 대표께 축하인사를 전하면서 각 기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의 변화노력에 동참하기를 결의하며, 특별히 31기 모집과 관련해서는 각 기수에서 1인을 추천하자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오는 10월에 지멘스그룹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케저 회장으로부터 초대형기업이면서도 세계 제일의 환경 친화 장수기업으로 존경받는 지멘스그룹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의 비결에 대해서 소상히 듣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니, 환경대학원 교수님들과 각 기 회장님들도 함께 하자고 요청하였다.

SGS 동창회 하계 해외답사

SGS 동창회에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여름 휴가기간에 세계 도시·환경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환경대학원 최막중 원장의 인솔 하에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와 주변 소도시 문화기행'을 테마로 하여 해외답사가 이루어졌다.



SGS 동창회 골프회 월례회

2014년 11월 25일, 경기도 이천의 실크밸리GC에서 SGS 동창회 골프회의 2014년 마지막 월례모임이 있었다. 조백일 前동창회장, 이문구 골프회장, 월례회원 6인, 31기 과정생 8인 등 16인이 참석하였으며, 31기 펠로우분들을 환영하고 교류하며 친목을 다졌다.



SGS 동창회 2015년 모임 안내

1) SGS 동창회 2015년 신년모임

- 일시 | 2015년 1월 22일(목) 18:30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참가 신청 | 과정사무실 02-880-8525, 010-9042-2541, sgs@snu.ac.kr

2) SGS 동창회 골프회 2015년 월례회

SGS 총동창회 골프회에서는 월례모임을 갖고 있다.
3월까지 참가신청서를 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환경대학원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참가 문의 | 골프모임 이문구 회장 (SGS 20기)/주식회사 다짐 대표이사 : 010-5223-0867
이진수 사무국장 (SGS 30기)/취라움 대표이사 : 010-3843-6828
과정사무실 김배 사무장 : 02-880-8525, 010-9042-2541, sgs@snu.ac.kr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환경계획학과 동문동정

- ❖ **이강건**(계획 7회) 동문은 11월 20일 일본 마쓰야마 시에서 개최한 제44회 한·일 기술사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 공익사단법인 일본 기술사회의 Yoshida Katsumi 회장으로부터 한·일 기술사회간의 국제협력 및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표창을 받았다. 또한, “개성공단의 사례를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의 과제 및 발전방향”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 ❖ **이창운**(계획 13회) 동문은 10월 한국교통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 **오영태**(계획 14회) 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 원장은 10월 교통안전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 ❖ **이만형**(계획 14회) 교수는 지난 8월 22일 충북대학교 기획처장으로 선임되었다.
- ❖ **유일선, 김학성, 예충렬, 전의찬, 박한민**(계획 18회) 동문은 8월 27일, 여의도의사당역 참배나무골에서 모임을 가졌다. 계획 18회 동문 모임은 구본영 서울신문 이사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박한민 동문이 총무를 담당하고 있다.
- ❖ **심재만**(계획 34회) 동문은 3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 ❖ **이태동**(계획 34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 The Translocal Relations of Environmental Governance*, New York: Routledge를 출간하였다. 아울러 “An Experiment for Urban Energy Autonomy in Seoul: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Energy Policy* 74: 311-318과 “동북아 오일허브정책의 지정학적 위험요인 분석: 싱가포르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5 (2)를 출판하였다.
- ❖ **고문현**(계획 27회) 송실대학교 교수는 지난 8월 2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1월 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56회 사법시험 3차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11월 11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4년 하반기 토양지하수 산업발전 포럼’에서 토양 지하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 ❖ **김다슬**(계획 42회) ㈜이든스토리 기획운영팀장은 태양광을 통한 ‘나눔’ 실천을 위해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운동)와 함께 소외계층에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희망해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haezoom.com/hop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경조경학과 동문동정

- ❖ **박상우**(조경 10회) 영남대학교 교수는 9월 17일에서 9월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갤러리 미술세계에서 환경조각전을 개최하였다.
- ❖ **문지영**(조경 34회, 협동과정조경학 박사 17회)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외래강사는 지난 10월 23일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에서 저서 ‘미학적으로 교량보기’로 저술상을 수상하였다.

- ❖ **서준원**(조경 37회) 동문은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계동 물나무 마당 갤러리에서 '공간잇기, 계동 100년'이란 주제로 북촌 골목길 공간의 의미와 역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를 가졌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gongganikki.co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심윤선**(조경38회) 동문은 문화재단 및 창작공간의 지원을 받은 작가들의 작업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자리인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린 '작품의 시작전에 'Constructed Island'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http://spaceinsite.com/Constructed-Island> 에서 찾아볼 수 있다.

8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동정

- ❖ **조백일**(도시·환경최고위과정, 前 SGS 동창회장) ㈜공간세라믹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1일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동반행사로 진행된 유공포상에서 친환경 유공자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친환경 내부점포벽들을 처음 출시한 공간세라믹은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 소재를 발명·생산해 상을 받게 됐다.
- ❖ **이용란**(도시·환경최고위과정 14기, 자치회 회장) 명보건설(주) 대표이사는 오랜 노력 끝에 경남 김해 장유문화센터 맞은편에 Pine Grove Hotel을 오픈하였다.
- ❖ **김기숙**(도시·환경최고위과정 15기) 펠로우가 회장으로 있는 (사)자연사랑은 12월 30일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대한민국 통일 희망(남·북한)나무심기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였다.
- ❖ **안섭**(도시·환경최고위과정 16기) 펠로우는 12월 3일, ㈜보루네오가구 대표이사에 재선임 되었다.
- ❖ **강신호**(도시·환경최고위과정 17기) 펠로우는 대림산업(주)를 퇴직하고, 지난 9월 11일 그룹 한 어소시에이츠의 부사장에 취임하였다.
- ❖ **강병록**(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기) (주)고려 건축설계건축사사무소 소장은 한양사이버대 부동산전공 석사학위를 취득(수석졸업)하였다.
- ❖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이사장인 **김창록**(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기) 펠로우는 회원사들과 함께 나눔복지, 공유복지의 취지로 서울시일원 98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작했다.
- ❖ **이문구**(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기) 펠로우가 대표로 있는 (주)다짐이 사단법인 새건축사협의회 선정 2014년 건축명장에 선정되었다.
- ❖ **조충기**(도시·환경최고위과정 22기) 서울시건축사협회 회장은 제31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했다. 선거는 2015년 1월 20일, 21일 회원의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 ❖ **김범상**(도시·환경최고위과정 28기) 글린트 대표는 2월 15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르코미술관에서 여는 '즐거운 나의 집'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에는 조각가, 화가, 그래픽디자이너, 건축가, 미디어아티스트, 광고기획자, 만화가, 주택 관련 분야 공무원 등 다종다양한 경력의 작가 27팀이 참여했다고 한다.
문의 02-760-4614
- ❖ **유태식**(도시·환경최고위과정 28기) 아우디플라워 대표는 새로운 서비스 아이템으로 "꽃배달영상메세지"앱을 개발하여 꽃배달서비스에 접목을 하였다. 이 앱은 주문자가 축하 또는 감사의 메시지를 음성, 영상메세지로 전송을 하면 아우디플라워에서는 이를 QR코드로 리본에 출력하여 배송하고 받는 분에게는 이를 문자로 전달하여 영상 메세지를 볼 수 있게 한다. 이 앱은 스마트폰 구글스토어에서 "꽃배달영상메세지"를 다운받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1661-5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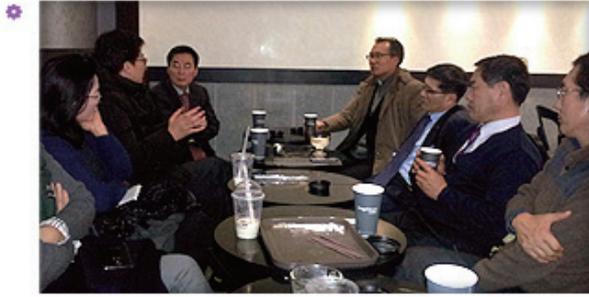
- ❖ 이상포(도시·환경최고위과정 28기) 펠로우는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 ❖ 정광희(도시·환경최고위과정 28기) 우림웍스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Good Design에 2점 선정되고,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 조영규(도시·환경최고위과정 28기) 펠로우는 (주)경호엔지니어링의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 ❖ 한기준(도시·환경최고위과정 29기)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은 11월 10일, 제38대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승진하였다.
- ❖ 최원만(도시·환경최고위과정 30기) (주)신화컨설팅 사장은 지난 10월 8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주최한 '부산 북항재개발 친수공원 마스터플랜 국제현상 공모'에서 (주)신화컨설팅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Interactive Pier" 로 수상작에 선정되었다. 친수공원은 전체 재개발사업지역(153만㎡) 가운데 28만㎡에 달하는 면적으로 해양문화지구를 중심으로 녹지 축을 형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SGS 자치회 소식

- ❖ SGS 16기 자치회는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 갖고, 최정운 펠로우(주유디아이 도시디자인그룹 대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 ❖ SGS 17기 자치회는 일 년에 6회의 정기모임과 수시로 산행 및 답사 등 비정기 모임을 지속하며 활기차고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며, 2014년 초에는 한준수, 임기주, 김혜경, 강신호 펠로우가 의기투합하여 4월 4일~14일(10박11일)의 일정으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다녀왔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 ❖ SGS 20기 자치회는 12월 12일, 도우리 한정식 교대점에서 송년모임 겸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여 명의 많은 펠로분들이 참석하여 이문구 회장과 박래훈 사무국장은 재신임 하였으며, 당시 주임교수인 이영인 교수도 함께 자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 SGS 24기 자치회는 12월 8일 용산에 있는 정선참숯골에서 송년모임 가졌다. 당시 대학원장인 이도원 교수, 주임교수인 김광중 교수와 은종환 자치회장을 비롯한 펠로우 20여명이 함께했다.
- ❖ SGS 26기 자치회는 12월 10일 송년모임 갖고, 손옥래 펠로우(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 ❖ SGS 27기 자치회 왕효석 회장은 12월2일 송년모임에서, 천기화 (주)한동알앤씨 회장이 새롭게 자치회장이 되었고, 신경근 (주)청우편 스테이션 전무가 사무국장이 되었다고 소식을 전했다.



SGS 28기 자치회는 12월 19일 한정식 해반 교대점에서 송년모임 가졌다. 당시 주임교수인 이영성 교수와 김봉규 자치회장을 비롯한 펠로우 20여명이 함께해 교류하였다.

SGS 29기 자치회는 12월 29일 팔레스호텔 3층 체리룸에서 송년모임 가졌다. 주임교수인 이영성 교수와 이상헌 자치회장, 펠로우 가족 등 30여명이 함께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GS 30기 자치회에서는 9월 정기모임으로 19일에서 2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북 상주에 다녀왔다. 강완수 자치회장(대동녹지건설㈜, 대이종합조경㈜ 대표이사)을 비롯한 20여 명의 펠로우가 참여해 운동그룹은 블루원 상주CC에서 운동을 즐겼으며, 답사그룹은 손혁재 펠로우(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의 안내로 역사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하였다.



SGS 30기 자치회는 12월 5일, 삼성동 선진종합건설㈜ 빌딩 CHERISH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가졌다. 총회에서는 강완수 펠로우(대동 녹지건설㈜, 대이종합조경㈜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재선임되었으며, 이어진 송년모임은 성종상 주임교수와 펠로우 20여명이 함께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다졌다.



SGS 31기 자치회는 문태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전무를 자치회장, 정진용 제일종합조경㈜ 대표이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SGS 31기 자치회에서는 12월 11일,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송년모임 가졌다. 이 모임은 전반기 종강모임을 겸해서 마련되었으며, 성종상 주임교수, 홍중호, 백운수, 최열 공동주임교수도 함께 하며 펠로우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했다. 문태현 자치회장을 비롯한 펠로우들은 방학 중에도 다양한 자치회 활동을 이어가자며 종강의 아쉬움을 달랬다.



인터뷰

9



1. 교수님께서 학부시절 임학을 전공하시고 1974년에 환경대학원을 입학하셔서 조경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교수님께서 대학원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중에 산지의 대부분이 황폐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산림녹화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산지조림용 묘목을 기르는 것이 집안의 가업이었습니다. 처음 임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온 이러한 집안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호황기가 지나고, 어느 새 고속도로가 지어지고 주거지와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는 임학의 단계를 넘어, 도시 내부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인으로부터 일본의 조원학(造園學)이라는 학문을 추천받았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시개발과 도시녹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기관으로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가 만들어져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얼마 전 환경대학원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발견된 교수님의 대학원시절 사진이 학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학생시절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옛 기억을 떠올려주는 참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마 1975년도에 찍은 사진 같은데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모여 찍은 사진입니다. 환경대학원 학창시절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법대 소유의 건물 별관에서 시작되었지요. 오래된 벽돌건물 마룻바닥의 삐거덕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홍보를 위해 전시작품을 만들어야 했는데, 당시 개발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하면 반정부 운동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전시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프린트 복사하기 없던 시대였으므로 한 개의 전시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등고선을 손으로 그리고, 큰 종이 위에 작은 글씨를 써내려 갔던 것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3. 조경식물, 환경생태, 골프장설계, RS/GIS까지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치고 연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영역을 넘나드는 다방면의 전문가로 활동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기억이 남는 수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대학원에 교수로 처음 부임했을 때 기존 교수님들의 전문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초임자로서 그동안 환경대학원에서 가르쳐지지 못하였거나 강사 섭외가 어려운 분야를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지요, 다행히 나는 임학과를 졸업하여 생태와 식물분야에 친숙하였고, 집안 분위기가 어렸을 때부터 조경식물도 잘 알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환경설계는 당시 학교에 CAD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미국에서 유학 중에 CAD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처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체계화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골프장설계와 RS/GIS 까지 수업 영역이 확장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가르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토지설계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조경분야에서도 땅의 정치작업과 같은 토목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조경의 분야는 대지 경계선의 내부만 다루는 것이 아닌,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배운 학생들이 지금의 조경영역을 넓혀 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전과 시도는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는 요즘시기에 조경의 새로운 영역을 찾아 판로를 개척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그동안 환경계획연구소 연구 실적의 절반 이상을 교수님 연구실에서 담당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노하우와 수많은 프로젝트 가운데 기억이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했던 일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한라산국립공원의 훼손된 등산로와 탐방시설 주변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한라산에 가서 복원대상지역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조사하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 중에는 비행기를 처음 타고 제주도를 가는 사람이 많아서 엄청 좋아하다가,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지리산 권역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의 산림지역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최근까지의 진행한 프로젝트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에코스타(Eco-STAR) 수생태계복원사업입니다. 하천주변지역은 물과 육지 양면의 생태계가 함께 작동하는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시, 논밭, 도로 등 개발지로 바뀐 상태입니다. 특히 4대강 개발 사업으로 하천을 구간별로 표준단면 형태로 자르고 제방, 보, 비탈면, 고수부지 등을 조성하여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하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생태계복원 프로젝트는 인간이 점유하기 이전의 하천 생태계 혹은 하천 회랑(corridor)에 살고 있는 동물의 서식지와 이동통로를 복구하는 일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 사업비도 상당히 컸고, 하천토목학, 생태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이 아주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적어도 3년 이상을 수행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수행한 학생은 탁월한 연구계획서를 쓰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해외학회에 참가하여 발표를 하고, 이것을 논문으로 발전시켜 투고하는 일들을 자주 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논문으로 발전시키고, 환경대학원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 교수님께서 산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조경식물소재 수업을 듣고 나면 웬만한 산은 거뜬히 올라가는 체력이 길러진다고 하는데, 특별히 산에 오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현장을 발로 다니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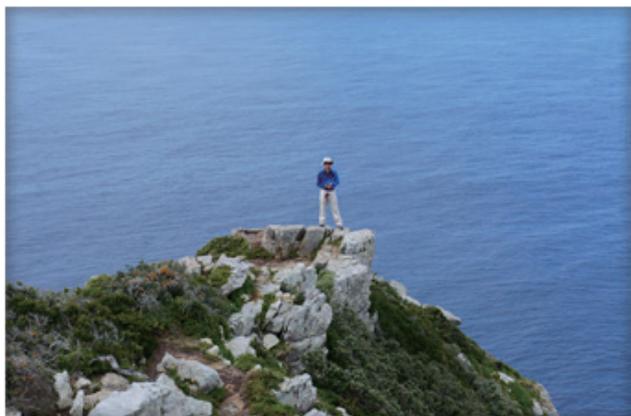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조경의 분야는 작은 설계단지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 그리고 전 세계의 땅을 다루어야하므로 현장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조경가가 현장을 모르고 컴퓨터 앞에 앉아 그림만 그리는 것은 절대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수업에서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교과목이 조경식물소재 수업입니다. 수강생은 반드시 3회 이상 산에 올라야 하며,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촬영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수업 중에 제주도 한라산 등반 하게 되는데, 이때 저지대 난대성 식물을 보고 올라가면서 기후와 지형에 따라 식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설명하는 강의를 해왔습니다. 8시간 이상 걸리는 한라산 답사는 현장의 중요함을 몸으로 깨우치게 하고, 건강한 조경가로 자라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시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의 환경조경학과 신입생 환영회는 설악산을 등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산장에서 숙박하고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당시의 학생들은 정신력과 체력이 뒷받침 되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후배가 같이 산에 오르면서 주변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환경대학원 출신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하고, 누구보다 현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융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학원의 교육환경은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높은 IQ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정신력과 체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환경대학원 출신이라고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에게 산에 오르고 현장을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6. 환경대학원 졸업생으로서 30여 년간 모교 교수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한 애착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이자 교수로서 학생들이 대학원 생활에 임해야 되는 자세와 환경대학원 출신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추이를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또한 나 자신과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하고, 눈앞에 놓여 있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의 공익,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사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대학원 졸업생은 공공재인 환경을 장기적 측면에서 잘 관리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대학원 학생은 5년, 10년 혹은 20년 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측,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기말과제에 정신이 다 쏠리고, 학기를 마치고 나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현상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2년이라는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논문을 쓰고 졸업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큰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학생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미시적인 상황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사회, 국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비교적 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키우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7. 본부 정년식 때 퇴임교수 대표로 연단에 오르셔서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그리고 환경대학원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985년 8월 19일에 환경대학원에서 들어왔고, 30년 가까이 되는 교수 생활은 저에게 있어 커다란 영광입니다. 더 없이 행복하게도, 교수생활의 마지막은 총장 추천으로 퇴임교수를 대표해서 연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해야 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했고, 제자들이 전문가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각계각층에 나가서 있으므로 정말 뿌듯합니다. 비록 내 능력이 모자라 큰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교와 환경대학원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문분야의 강한 리더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전에 저는 GIS학회장과 조경학회장을 하면서 환경대학원 졸업생과 후배들이 그 분야의 중심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했고 노력했습니다. 강한 리더가 탄생하여

환경대학원 출신들이 기량을 펼 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학원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대학원에서 몸담고 있는 지금의 교수님들은 1세대 교수들처럼 인재양성 등을 위한 전문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마지막으로 퇴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후배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박수를 쳐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방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침에 창문 틈으로 보이는 멋진 경관, 따뜻한 햇살과 커피 한잔의 여유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자리에서 했던 생각과 활동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다시 찾아보는 것이 내 첫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장기적인 변화와 예측을 통해서 구상한 일들을 완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연구해 왔던 황폐화된 북한지역의 산지와 자연생태계 복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동중업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의 도시 기반 시설 사업 증가에 따라서 토목과 건축의 하부공정으로 조경계가 약간의 파이를 차지하는 정도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남북한의 그린인프라를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과거에 호랑이와 표범 등의 대형 포유동물이 서식하던 수준으로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훌륭한 자연에서 높은 기상과 강한 정신력을 함양하여 주변 강대국과堂堂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토를 만드는 일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담당교수 이희연, 이유미, 조경진
학과조교 김고은, 김도훈, 오관교, 임동민, 홍은정 도시·환경최고위과정 조교 김 배 학생기자 기명성, 이정훈, 허운상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151-742 서울 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